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송연 글 | 유승하 그림 | 웅진주니어 | 192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앞표지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2) 책 앞표지 등장인물의 표정은 어떤가요?

⇒

3) 책 앞표지 등장인물의 표정은 어떤가요?

⇒

4) 다음은 책의 뒷표지에 쓰인 글입니다. 자신의 반에도 ‘강도훈’과 같은 친구가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권투 선수처럼 툭툭 주먹을 날리고,
발야구 규칙은 제멋대로 어기고,
“어부바!”하고 친구 등에 매달리는가 하면,
씨름 연습을 핑계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강도훈이 묻습니다.
“내가 네 친구냐, 아니면 그냥 나쁜 놈이냐?”
씨름 왕자 강도훈은 멋진 환관 뒤집기처럼
등 돌린 친구들의 마음을 뒤집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뜬금없이 웬 나이 타령이냐는 듯이. 그래서인지 몇몇 아이들이 얇통머리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 엄마는 거실에서 퍼더버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 “야, 손 이리 내, 손!”

조아름이 대번에 두 눈을 핥끔거렸다.

“흥, 나 손 없어!”

· 우리들은 언제쯤 강도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너무 희박해 보였던 것일까.

(나) 다른 아이 같으면 ‘만세!’ ‘빙고’ ‘야호!’ 따위를 외칠 상황인데 굳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이 할렐루야와 정혜린의 강아지놀이는 싱겁게 끝이 났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
- ②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편하게 뻗다.
- ③ 마음이 깨끗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
- ④ 가볍게 걸논질하여 자꾸 살짝살짝 쳐다보다.

· 얇통머리 : · 퍼더버리고 : · 핥끔거렸다 : · 희박해 :

2) (나)에서 다음 뜻을 지닌 낱말을 찾아 ○표를 하세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준다.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우리들은 우당탕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고, 강도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 콧방귀를 뀌었다.
- 듣기 거북한 말은 거의 없었고 대개 나를 칭찬하는 말이었다. 그러자 엄마 ㉡ 입이 수시로 크게 벌어져 귀밑에 걸렸다.
- “우리 반 여자애들이 봤으면 어쩔 뻔했나. 얼굴 들고 학교에 못 다니는 거지 뭐. 와, 생각할수록 ㉢ 등골이 오싹하다.”

(나) “이휘성이랑 친하냐?”

“네, 4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반 친구잖아요. 이제 됐어요?”

그리고 강도훈은 교실 밖으로 휙 사라졌다.

털보 선생님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더니 책가방을 정리하는 나를 슬쩍 결눈질했다. 나는 모른 척 자리에서 일어났다.

1) (가)의 밑줄 친 ㉠~㉢의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뜻을 아래에서 골라 각각 번호를 쓰세요.

- ① 기쁘거나 즐거워 입이 크게 벌어지다.
 ② 등골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매우 놀라거나 두렵다.
 ③ 아니꼽거나 못마땅하여 남의 말을 들은 체 만 체 말대꾸를 아니 하다.

㉠ 콧방귀를뀌었다 : ㉡ 입이 귀밑에 걸렸다 : ㉢ 등골이 오싹하다 :

2) (나)에서 다음 뜻을 지닌 속담을 찾아 밑줄을 그으세요.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와 ‘강도훈’의 만남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번갈아 걷기와 미끄럼 타기를 하면서 학교로 갔다. 웬지 기분이 산뜻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노릇인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을 잡아 끈 건 강도훈이었다. 정신이 휘청했다.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골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녀석이었다. 산뜻했던 기분이 한순간에 휴지처럼 구겨졌다.

(나) 나는 딱 잘라 말했다. / “아니요, 도훈이랑 전혀 안 친해요.”

“그러리라 짐작은 했다. 그런데 도훈이는 왜 휘성이를 좋은 친구라며 꼭 찍었을까? 도훈이가 한 말 너도 들었지?”

“그 말 듣고, 사실은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다. 도훈이랑 가깝게 지내 봐라. 진짜로 도훈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말이다, 행여나 도훈이에게 이상한 점이 눈에 띄거든 선생님한테 살짝 얘기해 द오.”

1) (가)에서 ‘나’(휘성)가 ‘도훈이’를 어떤 친구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찾아 쓰세요.

⇨

2) (나)에서 ‘털보 선생님’이 ‘도훈이’에 관해 ‘나’(휘성)와 비밀을 나누었는데, 그 비밀은 무엇인지 쓰세요.



친구들을 대하는 ‘도훈이’의 태도 ①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야, 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손 이리 내, 손!”

조아름이 발뚱 소리쳤다. / ㉠ “너한테 줄 손이 없다고, 이 자식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랑 놀기 싫다는 뜻이야.”

(나) 마지막으로 동작이 굽든 장범수가 달아나려다가 딱 걸렸다. 장범수는 동작이 굽뜨고 겁도 많은 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장범수가 제 발로 강도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다) “야, 신발이 물에 젖었잖아. 이걸 어떻게 신어?”

장범수가 대답이 없자, 강도훈이 억지를 부렸다.

“네가 내 신발을 물에 젖게 했으니까 책임져. 네 신발 한 짝 벗어서 이리 쥐 봐. 그 대신 내 신발은 네가 신어. 다 마른 다음에 신발을 바꿔 신으면 되잖아. 자, 빨리 벗어!”

1) ㉠을 듣고 ‘도훈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도훈이’의 입장에서 써 보세요.

⇨

2) (나)~(다)를 고려하여, ‘범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도훈이’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써 보세요.



친구들을 대하는 ‘도훈이’의 태도 ②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박한결, 이 할렐루야, 장범수도 강도훈이 김찬우 등을 강타하는 걸 봤을 텐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 했다. 결국 아무도 김찬우 편을 들어 주지 않은 셈이었다.

(나) “너희들이 허수아비냐? 눈은 있는데 머리하고 가슴은 없는 허수아비야? 그래서 친구가 맞는 걸 보고도, 도훈이 눈치만 살피면서 아무런 행동도 못 했던 말이지? 머리가 없어서 스스로 비겁하다는 생각도 못 하고, 가슴이 없어서 마음속에서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지?”

1) (가)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쓰세요.

이 속담은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가)에서는 미니 축구를 하다가 ‘찬우’를 때린 친구가 ‘도훈이’임을 밝히지 못하는 친구들의 상황을 이 속담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나)에서 비겁하게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아이들을 ‘털보 선생님’은 어떤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 쓰세요.

⇒

3) 자신이 (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지, (가)에 나타난 친구들의 태도와 비교하여 써 보세요.

⇒

‘도훈이’의 행동에 대처하는 친구들

이름 :

 〈내 친구 씨름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얘들아, 우리가 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김찬우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누가 기록을 하자. 차곡차곡 기록해서 선생님께 고발하는 게 어때?”

이 할렐루야가 바로 소리쳤다. / “할렐루야! 그거 아주 굿 아이디어다.”

(나) 털보 선생님이 길게 한숨을 토했다.

“더욱 놀라운 건 정신은 멀쩡한 녀석들이 강도훈에게 꿈쩍 못하고 바보같이 당했다는 것이다. 이라고도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냐.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도저히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김찬우, 박한결, 이 할렐루야, 장범수, 이휘성은 당장 강도훈과 관계를 끊어라. 서로 말도 섞지 마라.”

1) (가)에서 ‘도훈이’의 괴로움에 친구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고 있는지 쓰세요.

⇨

2) 친구들의 해결책을 들은 ‘털보 선생님’은 ‘도훈이’와 아이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는지 (나)에서 찾아 쓰세요.

⇨

3) 자신이 (나)의 ‘도훈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것 같은지 써 보세요.

⇨

‘도훈이’에게 열린 친구들의 마음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다음 날부터 강도훈은 오전에만 우리 교실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털보 선생님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했다. 더 이상 강도훈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았다. 설령 날카로운 이빨이 남아 있더라도 이제 강도훈에게 호락호락 당할 우리들이 아니었다.

(나) 다음 날, 우리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털보 선생님 승용차를 타고 10시 정각에 출발했다. 차는 막히지 않고 충주시까지 쉿쉿 달렸다. 충주시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학생 체육관으로 갔다. 시간 여유가 있어 가까운 중국 음식점을 찾아가 맛있게 짜장면을 한 그릇씩 비웠다. 배가 든든해야 응원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 다음 학생 체육관 관중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 박한결, 이 할렐루야는 앞줄에 앉고, 장범수와 털보 선생님은 우리 바로 뒷줄에 앉았다. 바짝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팔다리에 꿈틀꿈틀 힘이 들어갔다.

1) (가)에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된 ‘도훈이’를 가리키는 표현을 찾아 쓰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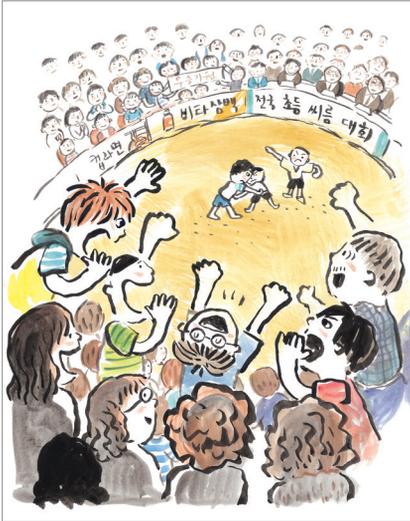
2) 묵언 수행 후, ‘도훈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친구들이 ‘도훈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윗글 (나)를 참고하여 써 보세요.

⇒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이름 :

💡 〈내 친구 씨름 왕자〉에 나온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1) 왼쪽 그림은 어떤 장면인지 쓰세요.

⇒

2) 이 상황에서 '도훈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지 써 보세요.

⇒

3) 친구들을 괴롭히길 좋아했던 '도훈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써 보세요.

⇒

4) '도훈이'처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



A series of horizontal r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re are 18 lines in total, starting from the top of the page and extending to the bottom.



정답과 해설

3쪽	<p>(예시답안) 1)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고 있고, 네 명의 아이들이 그의 팔이나 허리에 매달려 있다.</p> <p>2) 한 친구는 짓궂은 표정을 짓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웃으면서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p> <p>3) 앞표지에 학교의 모습과 학교 놀이터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의 배경은 학교일 것 같다.</p> <p>4) 우리 반에도 '지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강도훈'처럼 제멋대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장난을 심하게 친다.</p>
4쪽	1) ③, ②, ④, ① 2) 상급계
5쪽	1) ㉠ : ③, ㉡ : ①, ㉢ : ② 2)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6쪽	<p>1) 골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녀석</p> <p>2) 도훈이랑 가깝게 지내고, 도훈이에게 이상한 점이 눈에 띄거든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기</p>
7쪽	<p>(예시답안) 1) 아람에게 호감을 느껴 말한 건데, 아람이가 ㉠처럼 말해서 무안하고 속상했을 것 같다.</p> <p>2) 도훈아, 네 신발을 젖게 했다고 범수와 신발을 바꿔 신는 거는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야. 친구끼리 사이 좋게 지내야지,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야.</p>
8쪽	<p>1) 꿀 먹은 벙어리 2) 허수아비</p> <p>3) (예시답안)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도 (가)의 친구들처럼 도훈이가 무서워서 찬우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 못했을 것 같다.</p>
9쪽	<p>1) 도훈이가 친구들을 괴롭힌 것을 기록해서 털보 선생님께 고발하기로 하였다.</p> <p>2) 도훈이와 친구들끼리 관계를 끊고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p> <p>3) (예시답안) 내가 도훈이처럼 친구들과 말을 섞지 않고 생활해야 한다면 답답하고 많이 불편할 것 같다.</p>
10쪽	1) 이빨 빠진 호랑이 2) 씨름 대회에 가서 응원하였다.
11쪽	<p>(예시답안) 1) 도훈이가 씨름 대회에 나갔는데 반 친구들이 도훈이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다.</p> <p>2) 자신은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응원하러 온 반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났을 것 같다.</p> <p>3) 친구들의 관심이었을 것 같다.</p> <p>4) (예시답안)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말 건네기, 그 친구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 주기 등. 그림은 생략.</p>

응진주니어

값 9,500원



9 788901 203768

ISBN 978-89-01-20376-8
ISBN 978-89-01-03863-6(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